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농업 6차산업화 추진방안
전통식품 대상 확대 및 규격 대폭 개정

거시경제 동향

2013년 7월 소비자동향지수

현장 여론 조사 (KREI 리포터통신원)

농촌지역 일손부족 실태 현장여론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 조사결과

동향 분석 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농업 6차산업화 추진방안

※ 본 자료는 2013년 7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업농촌에 창조를 담는 6차산업화 본격 추진」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개요

- [6차산업화 정의]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특산물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 [목적] 농촌의 **활력 증진**,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
- [목표] **2017년까지**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추진을 통해
 -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6차산업화 주체 1,000개 육성
 - 농가의 농외소득 연평균 증가율 7.5%(현 4.6%) 달성
 - 고령농·여성 등을 위한 **농촌지역 일자리 매년 5천개 창출**
- [기본방향] 지자체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상향식**으로 추진, 지역별 특색 있는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중점
 - 귀농·귀촌 및 재능기부 등 외부전문가 풀(Pool) 활용한 농촌 인적역량 강화
 -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주요 정책과제

1) 성장단계별 지역·주민주도의 6차산업 육성체계 구축

- [사업 초기단계] 농촌 주민 **창업 지원**, 6차산업화 제품의 **지역 내 판매·소비 기반구축**
 - (창업지원) 주민주도의 농촌현장포럼 등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후,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사업화 및 시제품 생산지원
 - (기반구축) 단체급식 공급 및 로컬푸드매장 설립 확대를 통한 지역순환 경제체계 구축

○ **[성장단계]** 자본·기술의 부족 및 판로 확보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사전사업성 검토를 거쳐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체·공동체를 6차산업화 사업자로 인증
- 인증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사업화(R&BD) 지원 확대하고, 농식품 모태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펀드를 조성(13년 100억 원)하여 부족한 자본 조달

2)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역 네트워킹 강화

○ **6차산업화 협의체 구성**

- (다양한 주체 참여) 지역의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 등
- (정부지원) 공동 홍보·마케팅·품질관리 등 공동사업

○ **광역(도) 단위 중간지원기능 수행을 위한 총괄조직 지정**

-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지원기능 수행조직들 간 네트워크 구축

3) 6차산업화를 위한 인적·제도적 기반 구축

○ **지역 내 인적역량 강화, 6차산업화 분위기 확산**

- (전문 인력 육성) 6차산업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신설하고, 귀농·귀촌 희망자 및 농식품·농촌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에 대한 6차산업화 관련 교육 확대

○ **체계적 추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올 연말까지 (가칭)농촌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6차산업화 실행조사(5년 주기), 시·군 6차산업화 기본계획 수립, 중간지원조직 설립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부처 협조를 통해 6차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추진

주요 농정 이슈_2

전통식품 대상 확대 및 규격 대폭 개정

※ 본 자료는 2013년 7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전통식품 대상 확대 및 규격 대폭 개정」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 개요**

- **[정의]**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 **[도입목적]**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과 국내 농산물로 제조된 전통식품의 소비저변 확대
- **[전통식품 인증품 특징]** 주원료 100%를 국산으로 사용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이나, 일반 식품보다 가격이 다소 높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편

□ **주요 개정내용**

- **[개정 방향]** 전통식품 품질인증 및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료와 부원료를 명확히 구분, 품질·제조·가공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필요한 부분은 현실에 맞게 규격 개정
- **[전통식품 표준규격품목]** 5품목이 추가 제정됨에 따라 총 **77품목으로 확대**
 - (신설품목) 곡물차, 육포,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백삼가공품
- **[전통식품 표준규격 개정]** 한과류 등 기존 주요품목의 표준규격을 유통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선호도 확보**
 - (개정품목) 한과류, 청국장, 건표고, 엿, 고추장, 된장, 간장, 유자차, 인삼차류, 찌는떡, 치는떡, 삶는떡, 염절임, 초절임, 홍삼가공품
- **[추가계획]**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소비 성향 및 매출액 변화, 소비자 선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유통 활성화 도모

거시경제 동향

2013년 7월 소비자동향지수

※ 본 자료는 2013년 7월 26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소비자심리지수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중 105, 전월과 동일**

<구성지수의 기여도>

구 분	'12.11월	12월	'1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비자심리지수 ¹⁾	100	99	102	102	104	102	104	105	105
(전기 대비 지수차) ²⁾	0.2	△0.9	2.9	△0.6	2.5	△2.1	2.1	0.7	△0.2
구 성									
현재생활형편	0.0	△0.5	0.7	0.2	0.2	0.0	0.3	0.0	0.5
생활형편전망	0.2	△0.4	0.7	0.0	0.4	△0.2	0.2	0.4	△0.2
가계수입전망	△0.3	△0.3	1.3	△0.7	0.4	△0.3	0.0	0.0	0.0
소비지출전망	0.3	0.0	△0.3	△0.3	0.9	△1.2	0.3	0.0	△0.3
기여도									
(p) 현재경기판단	△0.1	△0.1	0.0	0.2	0.3	0.1	0.4	0.3	0.0
향후경기전망	0.1	0.4	0.5	0.0	0.3	△0.5	0.9	0.0	△0.2

주: 1) 소비자심리지수는 개별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합성하여 산출
2) 전기와 지수 차이를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시

□ 가계의 소비심리

- **[현재생활형편CSI*] 93, 전월대비 2p 상승**

※ 소비자태도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ndex): 장래의 소비지출 계획이나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지수로 환산해 나타낸 지표

- **[생활형편전망CSI] 99, 전월대비 1p 하락**

<생활형편, 가계수입 및 소비지출전망CSI 추이>

구 분	12.11월	12월	1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A)	7월(B)	(B-A)
현재생활형편CSI	87	85	88	89	90	90	91	91	93	(+2)
생활형편전망CSI	95	93	96	96	98	97	98	100	99	(△1)
가계수입전망CSI	98	97	101	99	100	99	99	99	99	(-)
소비지출전망CSI	108	108	107	106	109	105	106	106	105	(△1)

주: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을 조사

□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현재경기판단CSI] 82, 전월과 동일**
- **[향후경기전망CSI] 95, 전월대비 2p 하락**
- **[취업기회전망CSI] 92, 전월대비 4p 하락**
- **[물가수준전망CSI] 132, 전월대비 3p 하락**
- **[금리수준전망CSI] 100, 전월대비 10p 상승**

<경기, 취업기회, 물가 및 금리수준전망CSI 추이>

구 분	'12.11월	12월	'1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A)	7월(B)	(B-A)
현재경기판단CSI	68	67	67	69	73	74	79	82	82	(-)
향후경기전망CSI	81	85	90	90	93	88	97	97	95	(△2)
취업기회전망CSI	82	86	91	90	93	90	94	96	92	(△4)
물가수준전망CSI	144	142	141	141	137	138	136	135	132	(△3)
금리수준전망CSI	96	97	92	90	94	85	84	90	10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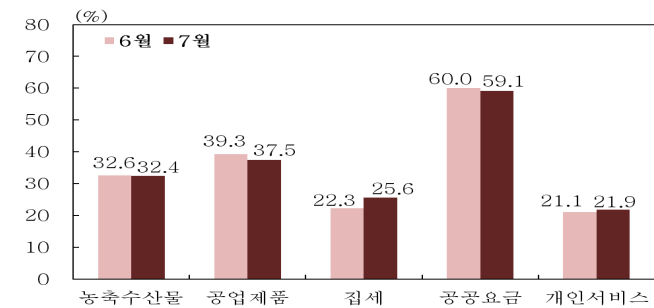
주: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을 조사

□ 기대인플레이션

- **[기대인플레이션율] 2.9%, 전월대비 0.1%p 상승**

-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된 품목**에 대하여 공공요금(59.1%), 공업제품(37.5%), **농축수산물(32.4%)** 순으로 응답

<기대형성 요인에 대한 응답비중¹⁾>



주: 1) 복수선택이 가능한 문항으로 총 합이 100%가 아님.

※ 리포트 전문은 KREI리포터 사랑방 사이트(<http://reporter.krei.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3. 7. 4 ~ 7. 23
- 수집대상: KREI리포터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수집
- 접수건수: 38건
- 주요내용

<농촌지역 일손부족 실태 현장여론>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라 농촌미래 불안 •봉사활동, 대체인력, 귀농인구 증가 등에도 인력문제 해소 어려워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후계인력 육성에 걸림돌 •농가소득은 불안정한 반면, 인건비 지출 비중 커 •노임 기준 마련해 과도한 인건비 지출 막아야 •외국인 근로자고용법, 일반 산업과 달리 적용해야 •도시 유희노동력 활용, 농촌인력공급시스템 마련
<기타 농촌현장 여론> •마을단위 공동사업 선정과 관리 개선 필요 •농산물가공, 농촌체험, 관광 등 통해 6차산업 활성화 필요 •농산물 생산관리시스템 마련해 수급안정 도모해야 •유전자조작농산물 유통관리 철저히 해 생산자·소비자 보호해야 •골든씨드 프로젝트 등 종자산업 기대 높아져 •해충방제로 결실 돕는 벌 사라지고 있어 •정년 후 은퇴자들에게 귀농 유도 위한 방안 마련돼야

□ 농촌지역 일손부족 실태 현장여론

○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라 농촌미래 불안

- 젊은 사람들은 공공근로 현장이나 인근 공장에서 일하고, 70세 이상 노인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음.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 일하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어 후계인력이 절실한 시점임.<충남 청양, 장석우>
- 젊은 사람들은 공장이나 식당 등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남자일손은 구하기가 어렵고, 여성들은 대다수가 60세 이상임.<충남 당진, 남도성>
- 지금 농촌인력은 예전 분들 그대로 세월이 지나 60대 초반에서 80대까지 농사일을 하고 있음. 귀농한 사람도 힘든 농사일 보다는 식당이나 공장, 매장 등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임.<충북 괴산, 박종임>
- 젊은 농업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80% 정도는 고령의 농업인이기 때문에 일손부족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 생각됨.<경북 청송, 박생순>
- 두레나 품앗이가 사라진 후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고 있음.<충남 부여, 최영호>
- 젊은 사람 한 두 명이 기계로 큰일(논갈기, 모내기 등)을 도와주고 나머지 잔일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하고 있음.<경남 의령, 전연수>
- 30년 이상 된 고정인원만이 농사를 짓고 있어 앞으로 우리세대 이후 농업을 누가 이어갈 것인가 걱정임.<강원 평택, 연규석>

○ 봉사활동, 대체인력, 귀농인구 증가 등에도 인력문제 해소 어려워

-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이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으로 오기도 하지만, 처음 해보는 농사일이 서툴러 제몫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경북 청송, 박생순>
- 대체인력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도 숙련도나 노동능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편임.<충남 부여, 최영호>
- 영양군에서는 일손도우미를 위해 숙식 및 편의시설을 따로 마련하였으나 막상 노동자는 없고 중간브로커가 1인당 9만 원의 비싼 인건비를 요구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경북 영양, 김갑순>
- 귀농인은 늘어나지만 농사일이 익숙하지 못해 자신의 농작물 돌보기도 벅차해 하고 있으며, 농사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음.<경북 영양, 김갑순>

○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후계인력 육성에 걸림돌

- 농업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으며 3D업종으로 여기고 도시보다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청년들이 기피해 인력부족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경기 안성, 임충빈>
- 농촌특유의 폐쇄성, 기존농업인들의 기득권유지,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 농사는 힘들고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인식 등으로 젊은 사람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음. '청년농부인턴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 동안 장려금, 최저생산비를 지급해 젊은 농업인이 초기 기반을 잡는데 도움을 주면 좋겠음.<경기 연천, 현진수>

○ 농가소득은 불안정한 반면, 인건비 지출 비중 커

- 상주를 예로 살펴보면, 콧감이 돈이 되니 젊은이들이 고향을 다시 찾아 귀농인구가 넘쳐 난다고 들었음. 농업소득이 많다면 인력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임.<경북 군위, 윤석구>
-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농자재와 인건비는 200% 이상 인상되어 이득이 없다고 생각되니 점차 농업을 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기만 하는 것 같음.<경기 남양주, 김용덕>
- 농촌지역에서 일인당 인건비는 보통 6만 원 수준임. 농산물 가격하락, 유가 상승 등으로 계속해서 소득보다는 지출이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음.<경북 청송, 박생순>
- 합리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형성되고 충분한 임금이 보장된다면 종사하는 인력이 늘어날 것이고 자연스레 일손문제는 해결될 것임.<충남 공주, 이봉룡>
- 8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이며 식사와 세차 제공, 인건비, 픽업, 전화비용을 합산하면 일인당 10만 원 정도 인건비로 부담하고 있음.<강원 영월, 유영조>

○ 노임 기준 마련해 과도한 인건비 지출 막아야

- 일을 서로 안하려고 하니 어느 집에선 얼마 주더라하고 자꾸 값을 올리는 경우가 있음. 마을조례로 적절한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전남 화순, 나종주>
- 농촌 일손의 수요시기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 웃돈을 주고 데려가는데 한사람이 웃돈을 주면 그것이 품값으로 정해져 계속해서 인건비만 오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경북 영주, 김기원>

○ 외국인 근로자고용법, 일반 산업과 달리 적용해야

- 인력사무소에서 온 인력은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시간때우기 식으로 일하게 되면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공업, 상업 노동시간을 농업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음.<경기 화성, 이운현>
- 이웃농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월 170만 원, 숙식·편의시설 제공, 여덟시 출근, 여섯시 퇴근을 시킨다고 함. 주인은 밤늦게까지 남아 일을 마무리한다고 하니 근로기준법 그대로 농업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됨.<경기 안성, 이길숙>
- 농업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고용주 말도 잘 듣지도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음.<경기 남양주, 김용덕>
- 외국인 근로자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준다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 한국인 근로자보다 더 배짱부리고 근무태만 하는 편임.<경남 함양, 박태우>

○ 도시 유희노동력 활용, 농촌인력공급시스템 마련

- 수확기 때 가장 가까운 도시와 연계하여 노동력을 확보해 인력보급, 유희노동력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얻는 방안이 필요함.<경남 통영, 이현순>
- 농번기에는 도시 인력을 지역별로 지원하면 좋겠음.<경남 김해, 김병철>
- 파종, 정식, 수확시기가 되면 도시의 부녀회와 연계하여 일손돕기운동을 실천하는 도농교류는 어떨까.<제주 서귀포, 김상우>
-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인근 도시 유희인력 2,000여명을 알선해 100여 농가에게 인력을 제공하며 상해보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음.<전남 나주, 노웅곤>
- 농협이나 행정기관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능력과 희망 작업, 임금 등을 파악하여 농가의 작업내용을 고려해 연결하는 노동력 제공 중개 역할을 하면 좋겠음.<경북 상주, 김인남>
- 단기적인 봉사활동, 농촌일손돕기운동, 외국인 근로자 보급으로는 일손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봄. 마을 단위로 근로자를 배정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면 좋겠음.<전남 순천, 김종근>
- 정부에서 인력고용센터를 만들어 부족한 농촌일손에 보탬이 되길 바람.<전남 무안, 배병열>

- 외국인 근로자, 공공근로자, 공익요원 등을 활용해 인력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정해주는 인력공사를 마련하면 좋겠음.<경북 영주, 김기원>
- 도시 유휴 노동자나 외국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인력협동조합을 만들어 농번기 때 인력을 충당해주면 좋겠음.<전북 김제, 박광양>
- 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촌봉사활동 활성화, 직장인의 농촌일손돕기운동 확산, 도시의 부녀회와 농가 연결 등 계절적 인력 수요를 제때에 충당시켜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경기 안성, 임충빈>

□ 기타 농촌연장 여론

○ 마을단위 공동사업 선정과 관리 개선 필요

- 예전에는 주민들이 협동해 새마을사업 등 많은 것을 성공시킬 수 있었는데, 점차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이기적으로 변해 책임자의 노력만 가지고는 공동사업을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임.<강원 정선, 남진하>
- 이해관계로 인한 불협화음, 고령화로 인한 의욕저하, 사업소재의 선정 부실 등이 마을단위공동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사업선정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지도와 관리가 요구됨.<경북 상주, 김인남>
- 기존 마을 공동사업의 성과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가져오기 어렵다 보니 점차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도 이제는 마을사업에 대해 심드렁한 마음임.<충남 당진, 남도성>
- 마을단위 사업도 의지를 가진 외부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법인이나 협동조합 같은 형태의 조직을 만들면 적극적인 참여와 농업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임.<전북 남원, 권승룡>

○ 농산물가공, 농촌체험, 관광 등 통해 6차산업 활성화 필요

- 농촌일수목 교육을 더욱 철저히 받아 선진농업, 창조농업을 실현해야 하며 자전거도로, 올렛길을 개척해 소비자인 도시민에게 농촌환경을 즐기도록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미나리, 감 가공 등 체험, 관광마을을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매우 중요함.<경북 청도, 정현수>

○ 농산물 생산관리시스템 마련해 수급안정 도모해야

- 다량 소비품목인 양파, 배추, 고추, 감자, 당근, 파 등의 재배 면적, 작황이나 생육상태를 미리 파악하여 제대로 재배되고 유통되고 있는지 관리해 계획적인 생산과 수급이 이뤄지길 바람.<경기 안성, 임충빈>

○ 유전자조작농산물 유통관리 철저히 해 생산자·소비자 보호해야

- 최근 '유전자조작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로 현재 출하, 시판되고 있는 옥수수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되고 있음. 콩, 밀, 옥수수 등 주요 작물에 대한 유전자조작농산물의 철저한 관리와 정보 제공으로 생산자는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비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함.<경기 안성, 임충빈>

○ 골든씨드 프로젝트 등 종자산업 기대 높아져

- 개인적인 방법으로는 해외 종자기술을 따라잡기 열악한 상황인데, 10년간 4,911억 원이라는 어마한 투자계획을 하고 있는 골든씨드 프로젝트 사업, 민간육종연구단지 등 정책이 앞으로 종자가치에 큰 힘을 실어 종자산업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대구 달성, 곽동준>

○ 해충방제로 결실 돕는 벌 사라지고 있어

- 작년에는 벌이 없어 양파꽃이 수정되지 않아 화경이 말라버리거나 결실된 수확량이 형편없었음. 그래서 올해는 대책으로 양봉을 하시는 분을 통해 직접 수정벌을 투입하였음. 네오니코티닐계통의 약으로 산림해충항공방제 하는 행위가 자연벌들을 소멸시키고 있으므로 다른 방제법 개발이 시급함.<대구 달성, 곽동준>

○ 정년 후 은퇴자들에게 귀농 유도 위한 방안 마련돼야

- 귀농을 젊은 층 위주로만 유도할 것이 아니라 사회경험과 경제력을 갖춘 정년 후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주택과 농지를 임대해 부담 없이 제 2의 직업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충남 공주, 이봉룡>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7월 22일~26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중국도 마늘풍년...국산마늘 '사면조가'



- 국내 생산량 과잉 및 중국산 마늘 풍년으로 올해 국산 마늘값 하락. 6월 말 중국 마늘 산지가격은 1t당 2,900위안(한화 52만6,000원) 안팎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8,500위안·154만3,000원)의 1/3 수준. 이에 따라 중국산 냉동품 1kg 1,200원선 수입 예상. 국내 국민 1인당 마늘 소비량이 최근 10여년 새 25% 이상 급감한 것도 마늘의 공급과잉에 한 몫. 1인당 마늘 소비량 ('00년) 10.6kg → ('11년) 7.7kg → ('12년) 7.9kg으로 연평균 3%씩 감소. 마늘 수입량 증가, 김치 소비량 감소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

자료 : 농민신문(2013.7.26)

□ 수입 조사료 가격 매년 급등...축산농가 생산비 부담 가중

- 수입 조사료 가격이 올 들어서도 큰 폭으로 올라 축산농가의 어려움 가중. 농식품부, 5월 말 현재 양축농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티모시건초·페스큐·알팔파 등 7개 조사료 품목의 평균 수입가격은 1kg당 423원으로 지난해 평균가격 대비 9.2%↑. 이들 7개 품목의 조사료 수입가격은 ('09년) 303원 → ('10년) 316원(4.4%) → ('11년) 335원(5.8%) → ('12년) 384원(16%) 등 국내 수요 증가와 중국에서의 수입량 증가로 인해 매년 급등세. 최근에는 한우농가들 사이에서 수입 조사료 품질이 좋아 고

급육 생산에 유리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용량 급증, 또한 배합사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완전배합사료(TMR)를 이용하려는 농가가 늘면서 TMR에 들어가는 수입 조사료 수요도 덩달아 증가

자료 : 농민신문(2013.7.24)

□ 산지쌀값 유통단위 '20kg으로' 통일

- 7.19일, 윤명희 의원(새누리, 비례) 주최, '산지쌀값 유통정보 기본단위 변경 간담회', 산지쌀값 유통단위가 혼돈돼 사용되는 문제점 개선 위해 현재 거래물량이 가장 많은 20kg을 기본단위로 조사 및 발표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 형성. 쌀값의 경우 통계청과 aT가 20kg 단위로 조사한 가격 기준으로 농식품부가 산지 가격 발표 시 80kg으로 수정·발표해 기준 상이, 20kg 이하 소포장 단위 쌀을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정부 발표를 보고 쌀값을 높게 인식. 농식품부, 현재 산지 및 소비지의 쌀값 조사 기준을 20kg으로 변경, 향후 공공 비축미 매입 가격기준 역시 20kg 단위로 정할 계획

※ 지난 5~6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인 및 양곡관계자 1,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농업인의 63%, 양곡 관계자의 77%가 산지 쌀값을 20kg 단위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7.25)

□ 농지전용 애농고...미개발 투성이

- 농식품부, 농지가 실제 수요 이상으로 많이 다른 용도로 전용, 필요한 때보다 이른 시기에 전용돼 막상 전용이 이뤄진 후에는 개발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사례 발생, 농지전용 후 토지주가 당초 신청 목적과 다른 엉뚱한 용도로 변경해도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주변 토지이용과 어울리지 않는 개발로 주민 갈등이 초래되는 등 전용 농지 관리가 취약해 대책 마련 시급.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02~'09년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면적 265.4km² 중 실제 개발된 면적은 불과 25%. 또한 국가산업단지 40개 중 10개, 일반산업단지 368개 중 171개,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 중 4개, 농공단지 401개 중 46개가 미개발. 이처럼 농지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 전용돼 이용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다른 농지전용 요구가 계속돼 난개발 우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전용농지 이력관리제* 도입키로

※ 전용농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농지 이용실태와 아울러 전용 후 용도 변경 되는 전체 농지 이력정보를 파악해 단계별로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자료 : 농민신문(2013.7.22)

□ 농산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 시급

- 농산물 폐기물 산지유통단계에서 연간 215만 톤 발생 추정, 폐기물 직접 처리할 시설 부족으로 위탁처리비용이 연간 1,720억 원 소요, 산지 농산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시급. 수확 후 유통과정에서 농산물 감모율은 평균 25% 수준으로 채소류는 연간 243만7천 톤, 과실류는 615톤 등 연간 307만 톤의 폐기물 발생. 산지농산물 유통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산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증가. 이에 따라 산지유통시설이나 농산물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부산물 등을 모아 유기질 비료나 버섯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폐기물자원화 시설 필요. 특히 유기질비료, 버섯배지의 폐기물로 분류 되는 원료 수입량은 '11년 기준 224만 톤으로 1조 원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 전처리, 가공시설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7%인 반면, 농산물 폐기물 처리 비용률은 2% 수준으로 자원화시설이 구축되면 매출이익률이 더 증가할 전망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분류돼 자체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자료 : 원예산업신문(2013.7.24)

□ 유럽, 농작물 바이오연료 사용제한 추진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농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제한하는 방안 추진. '20년부터 운송용 농작물 바이오연료 사용 5.5% 이내로 제한, 간접적 토지이용 변화(ILUC)*의 영향에 대해 평가하기로. 대신 도시쓰레기나 농산폐기물을 활용한 2세대 바이오연료사업 장려, 바이오연료 업체에 대해 기술적인 지원과 함께 통계 제공 등을 통한 투자 확대 및 기술혁신으로 상용화 앞당기기로. 이 같은 결정은 농작물 바이오연료 사용 비중

감소, 2세대 바이오연료의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기로 정책 변경, 9월 유럽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 현재 유럽연합(EU)의 바이오연료는 130억 유로 규모, 이 중 사탕수수·곡류·유지식물 등 1세대 바이오연료 사용 비중은 4.5% 수준. 이번 유럽의회의 바이오연료 정책 변경으로 관련 단체와 업계의 논란은 커질 전망. (환경단체-공정론)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정책, (바이오연료 생산업체-부정론) 업계 타격과 투자 의욕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

※ 농작물 생산지역이 바이오연료 생산지역으로 교체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이 오히려 늘어 역효과가 발생하는 현상

자료 : 농민신문(2013.7.22)

□ 면세유 연 10만ℓ 이상 사용 땀 농가 수확시설 등 설치 의무화

- 농식품부, 면세유를 연간 10만ℓ 이상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추진계획' 마련. 특히 면세유 포함한 유류를 연간 50만ℓ 이상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5년까지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의무화 방안도 함께 추진. 이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 에너지를 적게 쓰고, 바퀴 쓰고, 다시 쓰는 3가지 절감 방안 추진할 계획. ▲'적게 쓰기'...한해에 면세유를 10만ℓ 이상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수확시설·보온덮개·다겹보온커튼 등의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의무화. 다만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이들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 고려. ▲'바퀴쓰기'...유류 사용량이 연간 50만ℓ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 되는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의무화, 지열 냉난방 시설은 유류 사용에 비해 에너지 절감률이 70~80%, 다만 이 시설은 초기 투자비가 1ha당 14억 원에 달할 정도로 워낙 커 해당농가들의 반발 예상. ▲'다시 쓰기'...축분의 에너지화, 회수 열 재사용, 폐열 활용 등 추진, 2010년 3개소가 시범적으로 설치됐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13년까지 8개소를 추가 설치, '17년 21개소로 확대한다는 구상

자료 : 농민신문(2013.7.22)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 조사결과

※ 본 자료는 2013년 7월 25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보리

○ [재배면적] 25,691ha, 전년대비(21,200ha) **21.2% ↑**

※ 겉 보 리: ('12) 4,750 → ('13) 7,540ha(2,790ha, 58.7%)

※ 쌀 보 리: ('12) 12,702 → ('13) 13,654ha(952ha, 7.5%)

※ 맥주보리: ('12) 3,748 → ('13) 4,497ha(749ha, 20.0%)

○ [10a당 생산량] 352kg, 전년대비(399kg) **11.8% ↓**

○ [생산량] 90,390톤, 전년대비(84,525톤) **6.9% ↑**

- 10a당 생산량은 월동기 이상 저온현상으로 냉해피해를 입어 감소하였으나, 농협 계약단가 인상 및 보리외의 대체작물 부재로 재배면적이 전년대비보다 크게 증가하여 전체 생산량은 전년대비보다 증가

○ [시도별 생산량] 전북이 **35,616톤(39.4%)**으로 가장 많고, 전남 26,512톤(29.3%), 경남 16,990톤(18.8%) 순

□ 마늘

○ [재배면적] 29,352ha, 전년대비(28,278ha) **3.8% ↑**

○ [10a당 생산량] 1,405kg, 전년대비(1,199kg) **17.2% ↑**

○ [생산량] 412,250톤, 전년대비(339,113톤) **21.6% ↑**

- 재배면적 및 10a당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여 생산량 증가

○ [시도별 생산량] 전남이 **109,263톤(26.5%)**으로 가장 많고, 경남 109,090톤(26.5%), 경북 68,244톤(16.6%) 순

□ 양파

○ [재배면적] 20,036ha, 전년대비(20,965ha) **4.4% ↓**

○ [10a당 생산량] 6,458kg, 전년대비(5,703kg) **13.2% ↑**

○ [생산량] 1,294,009톤, 전년대비(1,195,737톤) **8.2% ↑**

- 재배면적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구비대기*에 후기 기상양호로 10a당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체 생산량은 전년대비보다 증가

※ 씨알이 끊어지는 시기인 4~6월

○ [시도별 생산량] 전남이 **580,151톤(44.8%)**으로 가장 많고, 경남 379,299톤(29.3%), 경북 177,115톤(13.7%) 순

<연도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

단위: 톤

구 분	보리	마늘	양파
2008	241,045	375,463	1,035,076
2009	210,813	357,278	1,372,291
2010	116,451	271,560	1,411,646
2011	109,210	295,002	1,520,016
2012	84,525	339,113	1,195,737
2013	90,390	412,250	1,294,009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